

수 실 류

은 행

목 차

1. 식물의 특성

- 1-1. 재배식물의 특성
- 1-2. 재배식물의 성장

2. 재배환경

- 2-1. 적지
- 2-2. 생육지

3. 재배기술

- 3-1. 우량개체 선발
- 3-2. 실생묘
- 3-3. 삽목
- 3-4. 접목

4. 재배방법

- 4-1. 습해대책
- 4-2. 수형관리
- 4-3. 시비
- 4-4. 제초관리

5. 병해충방제

6. 수확 및 전망

- 6-1. 수확과 저장
- 6-2. 수확량
- 6-3. 전망

은행

- 학명 : *Ginkgo biloba* L.
- 영명 : Maidenhair Tree
- 한명 : 銀杏(은행), 白果(백과)

1. 식물의 특성

1-1. 재배식물의 특성

화석식물로 침엽수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미진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열매가 은빛나무 살구의 겉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은행목(銀杏木), 품위가 공손(公孫)과 같이 높다하여 공손수(公孫樹), 오리발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압각수(鴨脚樹), 종자의 색깔이 희다고 하여 백과(百果)라고도 부르며, 그 외에도 행자목(杏子木), 백자목(白子木), 으능나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나무 중 가장 수명이 긴 수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번식력이 매우 약하여 큰 은행나무 주위에 자생되는 어린나무는 볼 수가 없다. 식물 분류학상 겉씨식물에 해당되며 은행나무과 은행나무屬으로 1과 1屬의 수종이다. 암수가 다른 나무로 암수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염색체로 구별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수형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다. 암나무는 수나무에 비해 가지 모양이 작고 굵으며 옆가지가 많고 잎 모양이 작다. 또한 잎의 갈라진 깊이가 얇고 개체에 따라 15년생에서도 결실이 되어 쉽게 암나무를 알 수 있다. 재배 시 암·수의 구별이 어렵더라도 암나무를 접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수분은 바람에 의해 이루어지며, 암·수의 비율은 100:5 정도이다.



그림 1. 은행나무 꽃



그림 2. 은행나무 열매

1-2. 재배식물의 성상

낙엽침엽수의 교목으로서 높이가 30m, 직경 2m에 달하고 있으나 지금으로부터 1억년 전에는 높이가 60m 이상이고 지름이 4m에 달하는 큰 나무가 무성하였다고 한다.

잎은 호생하지만 짧은 가지에서는 총생한 것처럼 보이고 부채모양이며 맥이 차상(叉狀)으로 갈라진다. 긴 가지의 잎은 깊이 갈라지고 짧은 가지의 잎은 가장자리가 밋밋한 것이 많다. 잎 끝은 미세하게 물결치는 모양이지만 양쪽은 평활하다. 엽질은 혁질이고 엽맥은 잎 기부에서 끝을 향하면서 몇 번 갈라지며 차상맥을 이루나 평행맥처럼 보인다. 그래서 맥에 주종이 없다. 엽맥은 잎 속의 유관속계인데 잎의 매무새를 지탱하고 동시에 수분 등 양료가 통과하는 길이다. 은행나무 잎의 맥은 잎 끝에서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개방맥이다. 맥이 한 곳에서 3개로 갈라지는 일은 없고 분기가 집중되는 대(帶)를 형성한다. 잎은 장지에서는 서로 떨어져서 나지만 단지에서는 무더기로 모여 나는 모습을 보인다.

열매는 쌍으로 달리는 배주 가운데 하나는 대개 위축하고 다른 하나가 성숙하여 표면에는 흰가루 모양의 납 물질이 덮인다. 바깥 육질부분을 외종피라 하는데 이상한 냄새를 낸다. 외종피 안에는 은백색의 단단한 중종피가 있고, 대개 2줄 때로는 3줄의 능선이 발달해 있다. 이것을 백과(白果)라 하는데 한쪽은 뽕족하고 다른 쪽은 둥글다. 둥근 쪽에 능선수 만큼의 작은 돌기가 나 있는데 이것은 종병이 붙어 있던 자리이다. 중종피를 제거하면 그 안에 막질의 내종피가 있는데, 하반부는 회백색이고 상반부는 적갈색의 막으로 되어 있다. 이 내종피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배유인데 식용으로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단단한 내종피의 안쪽을 보면 역시 상반부는 내종피의 그것처럼 적갈색이고 하반부는 회백색이다.

꽃은 모두 단지 위에서 어린잎과 함께 나타나며 수꽃은 1~5개의 화축이 꼬리 모양으로 발달한다. 수술은 각각 2개이고 약을 가지며, 그 모양은 긴 타원형이고 길이는 3mm 정도이다. 약은 성숙하면 봉선을 따라 갈라진다. 화분이 발아하게 되면 2개의 정자가 나타난다. 암꽃은 6~7개가 모여 나고 그 끝에 2개의 배주가 달리는데 그 안에 난세포가 있다. 꽃은 5월경에 핀다.

은행나무는 높이가 30m 이상, 지름이 2m에 달한다. 가지가 잘 발달하고 20~30년생까지는 수관의 모양이 다듬어지나 오래된 나무는 줄기가 갈라지면서 불규칙한 모습으로 된다.

2. 재배환경

2-1. 적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및 해변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각지에 널리 식재되고 있다. 햇볕을 좋아하는 양수이며 뿌리가 깊게 들어가 습기 있는 땅을 좋아하나 건조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다.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되는 비옥하고 평평한 땅에서 장수한다. 바닷바람과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며 줄기를 끊어 수형을 다듬어 줄 수도 있다. 내화성, 내한성도 강하며 이식도 용이하다. 맹아력이 있어서 늙은 나무 뿌리목 부근에서 흔히 많은 움가지가 돋아나고 이것이 큰 나무로 되기도 한다.

2-2. 생육지

수직적으로 표고 500m 이하, 수평적으로 제주, 전남, 경남, 경북, 충북, 강원, 경기(용문산),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에 자생한다. 그러나 압록강변 강계에도 큰 은행나무가 있고, 만주 심양에도 식재한 나무가 크게 자라고 있어 내한성이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다. 심양의 절대 최저기온은 약 영하 38℃이다. 중국 남쪽으로는 광주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있어서 적은 영역이 넓다. 야생의 은행나무는 중국 양자강 하류 천목산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곳은 해발 500~1,000m 되는 곳으로 토양산도는 pH 5.0~5.5인 황색 양토이다.

3. 재배기술

3-1. 우량개체 선발

3-1-1. 우량개체 후보목 선정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은행나무 중에서 과실이 크고 품질이 우수한 우량품종을 선발 보급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전국 33개 시·군에서 20년생 이상 되는 우량개체 후보목 202본을 선정하여 매년 과실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목의 대부분은 보호수 혹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00년생 이상의 노거수가 대부분이며, 각 지역별로 선정된 후보목 이외에도 비교목과 함께 조사를 하였다.

● 수실류

3-1-2. 우량개체 선발기준

은행나무는 결과습성이 다양하게 나타나 결과지당 1~2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이 결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객관성 있는 선발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청피를 제거한 과실의 무게, 속알맹이 무게, 단지당 결과수를 <표 1>과 같이 6등급으로 지수화 하였다.

표 1. 지수에 의한 우량개체 선발기준, 무게

지수	1개당 열매무게(g)	1개당 속 알맹이 무게(g)	단지당 결과수(개)
1	1.19~1.67	0.91~1.29	2
2	1.68~2.16	1.30~1.68	4
3	2.17~2.65	1.69~2.07	6
4	2.66~3.14	2.08~2.48	8
5	3.15~3.63	2.49~2.85	10
6	3.64~4.12	2.86~3.24	12

3-1-3. 우량개체 선발

우량개체 후보목으로 선정된 202본을 지수화하여 지수 합계가 가장 높은 5개체를 우량개체로 최종 선발하였다. 우량개체로 선발된 5개체의 과실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은행나무 우량개체 과실특성

구분	개체명	1개당 열매무게 (g)	1개당 속 알맹이무게 (g)	인중비 (%)	단지당 결과수 (개)
선발개체	경기 39호	3.4	2.7	79.4	2~11
	경기 40호	4.1	3.2	78.0	3~10
	경기 41호	3.8	2.9	76.3	3~10
	전북 10호	3.2	2.5	78.1	3~10
	경남 9호	3.6	2.9	80.6	2~10
재래종	-	1.7	1.3	76.5	2~3



그림 3. 은행나무 우량개체 과실특성

우량개체로 선발된 5개체는 1개당 열매무게가 재래종에 비하여 1.9~2.4배 무겁고, 단지당 결과수도 2~11개로 많았다. 또한 대립, 다수확개체이므로 접목으로 대량증식하여 채수포를 겸한 클론검정림을 조성하여 확대하였다.

3-2. 실생묘

종자를 뿌려 묘목을 얻는 실생 번식은 백과를 가을 또는 봄에 뿌리는데, 가을에 뿌리는 시기는 낙엽이 진 후 땅이 얼기 전까지이다. 봄에 뿌릴 때는 겨울동안 종자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좋으며, 해동 후 잎이 나기 전까지 심을 수 있는데 잎이 늦게 나기 때문에 늦게까지 심을 수 있으나 빨리 심는 것이 좋다.

3-3. 삼목

삼목법은 봄에 단지 또는 15~20cm 길이로 가지를 끊어서 삼목하는데 연필 굵기만 한 것이 좋고 초봄, 초여름, 가을 어느 때 꽃아도 뿌리가 잘 내린다.

3-4. 접목

은행나무는 종실을 목적으로 재배할 때에는 열매가 크고 상품성이 높고 수확량이 많은 계통의 나무를 선정하여 심어야 한다. 결실될 때까지의 기간이 길고 묘목 생산기간도 길어 정확한 품종의 식재가 중요하다. 원하지 않는 품종이 섞이면 결과개시까지 기간이 길어 시간의 낭비가 크고 결과기에 들어가서 재 접목을 해야 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므로 순정묘목의 구입은 필수적이다. 접목 은행나무의 특성은 5~8년이면 결실 수확이 가능한데 가능하면 큰 나무를 만들어 수확하는 것이 전체 수확량과 나무의 건강에 좋고 수명도 길어진다.

● 수실류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나무의 성장이 더 늦어지므로 나무가 어릴 때에는 열매를 따버리는 것이 좋다. 많은 양분을 주어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곧게 자라지 않고 접목 부위에서 45° 각도로 자라기 때문에 지주가 필요하다.

3-4-1. 접수채취 · 저장

접수채취 시기는 휴면기인 2월 중·하순경에 품종이 확실한 1년생 가지의 눈(冬芽)이 충실한 것을 채취하고, 채취한 접수의 저장은 2~4℃ 되는 저장고 또는 냉장고가 적당하다.

3-4-2. 접목시기

4월 하순이나 5월 상순경에 실시한다.

3-4-3. 접목방법

대목의 조제방법에 따른 절접(切接)과 박접(剝接) 및 대목의 높이에 따른 저접(低接)과 고접(高接)으로 구분된다.

3-4-4. 접목 후 관리

접목끈을 묶은 부위와 접수 끝의 절단면에 톱실피스트를 도포하여 건조 및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3-4-5. 접목묘 관리

접목포지 관리는 맹아 제거, 새순 제거, 접목끈 묶기 및 지주목 설치 등이 있다.



그림 4. 접목



그림 5. 접목묘 관리

3-4-6. 식재 간격과 경제성

접목묘는 성장이 늦어 많은 수확을 올릴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밀식이 필요하다. 성장이 늦은 데다가 빨리 결실이 되므로 자람이 더욱 늦다. 1평(3.3㎡)에 1주 정도 심어 5년 정도까지 수확하다가 중간의 것을 옮겨 심는다. 일찍부터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1평에 1주 또는 2~3평에 1주까지 심어야 되며 너무 넓게 심으면 수확이 되더라도 관리 경비가 들지 않으므로 사방 3.5m 정도의 거리로 심는다. 3m에 1.0~1.5m로 심는 경우도 초기에 수확을 5년 정도는 할 수 있다.

1,000㎡당 40그루(3.5×3.5m)로 하면, 최종적으로 나무의 생육상황에 따라 20그루(7×7m)로 간벌한다.

4. 재배방법

4-1. 습해대책

은행나무의 뿌리는 침수에 매우 약하다. 잘 자라다가 장마가 와서 잎이 누렇게 되는 것은 대부분 뿌리가 물에 잠겨 썩기 때문이다. 심하면 죽게 되고 다음 해에도 그럴 수 있어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옮겨 심는다.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곳은 배수로를 만든 후 심는다. 큰 나무가 되면 뿌리가 더욱 깊이 들어가 습해의 우려가 더 높아지므로 처음부터 경비가 다소 들더라도 굴착기로 배수로를 치면서 심을 곳을 높게 만드는 것이 좋다.

4-2. 수형관리

접목한 은행나무는 곧게 자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루에 한 개씩의 지주가 필요하다(곧게 자라는 원줄기를 사용하면 곧게 자란다). 최소한 1.8m 정도는 곧게 키워야 하므로 지주의 길이는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여 2.2m 이상 정도 되는 파이프를 준비한다. 지주가 준비되었으면 미리 그것을 박아 심을 곳을 표시한다. 심을 때는 전년도에 자란가지(품종부분)를 수직으로 세워 심는다. 심은 나무를 지주에 묶어 곧게 자라도록 한다. 나무가 자라서 지주 이상의 높이로 자라면 그곳을 잘라주어 그 부분의 밑에서 자라는 가지(45°로 자람) 2~4개를 균형 잡히게 길러준다. 나무가 자라면서 곁가지가 나오는데 1.8m 이하에서 나오는 것은 잘라 주어 후에 관리를 편하게 하여야 한다. 결실 습성이 원줄기, 곁가지 등 어디라도 달리기 때문에 굵은 상태에서 결실이 된

● 수실류

후에는 잘라 주기가 아깝고 잘라 주어도 그 면이 넓어 상처가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빨리 잘라주는 것이 좋다. 올해 자란 가지는 내년엔 잎이 나기 전에는 자른다.

고점묘(접목 위치가 최소한 1.7m 이상)는 대목이 곧게 자랐기 때문에 품종(접수)부분의 균형을 잡아주면 된다.

4-3. 시비

접목한 은행나무는 성장속도가 매우 느려 양분이 많은 토양에 심어야 잘 자란다. 아주 척박한 곳에서는 거의 자라지 못하므로 심지 않는 것이 좋다. 매년 잎만 나왔다가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은행나무의 수확량은 절대적으로 나무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빨리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데, 은행나무는 추위에 아주 강해 절대 얼어 죽는 피해가 없으므로 시간만 나면 1년 내내 어느 때라도 비료를 충분히 주어 키우도록 노력한다.

퇴비나 화학비료 등을 골고루 살포하여 로터리 한 후 심는 것이 좋다. 구덩이에 비료를 많이 주어 심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경우가 있고, 한번에 많은 비료를 주면 장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금씩 자주 주도록 한다. 비온 후 축축할 때 나무 주변에 골고루 흩어 뿌려주는데 이때 나무에 직접 닿아도 괜찮다. 나무의 크기가 클수록 뿌리가 멀리까지 나와 있으므로 그곳까지 비료를 준다.

퇴비는 식재 후 나무 주변에 종류에 따라 틀리나 다소 많은 양을 주어도 된다. 심을 때 외에는 일손을 덜기 위해 주로 잎이 떨어진 시기에 살포한다. 하지만 언제라도 살포하면 더욱 좋다. 퇴비만 가지고서는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적절히 복합비료도 주는데 잎이 나기 전 1회 정도와 잎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월 2~4회 정도 주는 것이 좋으며 시비량과 시기는 적절히 조절하고 늦게까지 자라도록 8월말 또는 9월까지 주어도 된다.

침수가 되어 잎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나무는 비료를 주지 않는다. 관수시설이 되어있는 경우는 물을 줄 때마다 비료를 녹여서 주는데 비료의 농도를 낮게 하여 자주 줄수록 좋다.

은행나무만큼 늦게 자라는 나무도 드물지만 가장 많은 비료를 요구하는 나무이므로 좋은 토양에 심고 적절히 양분을 주어 자람을 원활히 하는 것이 좋다. 열매가 달리면 많은 양분이 소비되어 거의 자라지 못하므로 나무의 부피가 작을 때에는 어느 정도는 솎아주는 등 자라면서 열매가 달리도록 해야 한다. 은행의 해거리는 모두 양분의 부족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다음해에도 잘 달리고 열매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 퇴비와 복합비료를 주어야 한다.

4-4. 제초관리

잡초의 성장은 나무에 비해 훨씬 빨라 잡초방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잡초를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은 주변으로 멀칭을 하면 된다. 투광률이 낮고 폭이 1.0~1.2m 정도 되는 차광망을 덮어 주는 것이 좋다. 검은 비닐은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비료를 주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적게 심은 경우는 부직포, 신문지, 골판지, 짚 또는 풀 등으로 비료의 살포가 가능하도록 덮어 준다.

제초제는 뿌리까지 말려 죽이는 것으로 잡초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일년생 잡초는 오리잘린 액상수화제나 플루아지포프-피-뷰틸 유제를 용법에 맞게 살포한다. 예초기 등으로 제초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멀칭을 하는 것으로 초기에 다소 비용이 들어가도 훨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초관리만 잘 되면 나무를 키우면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제초제 사용을 위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은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또는 농사로(<http://www.noongsag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5. 병해충방제

은행나무는 병충해가 거의 없으나 종종 발생하는 병충해에는 점무늬병, 잎마름병, 자주빛날개무늬병, 잎마름병 등이 있다.

동고병을 예방하려면 남쪽 지표 쪽 부분을 덮어 주어 복사열을 막아야 하며, 발병하면 외과 수술을 하여 병이 더 진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우병 예방 방법으로는 병든 묘목을 사지 말 것, 매년 깊이 전정하지 말 것, 병든 나무를 뽑아서 태우고 토양을 클로르피크린으로 소독할 것, 귀중목일 때는 발병 부위를 소독하고 말라 죽은 뿌리를 잘라 버릴 것 등이다.

잎마름병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질소 비료를 적게 사용하며 나무아래에 부초를 해준다.

그러나 은행나무는 병해충방제를 위한 농약잔류허용기준(PLS, Positive List System)에 등록된 약제가 아직 없어 농약 사용 시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6. 수확 및 전망

6-1. 수확과 저장

은행나무는 평생 약을 치지 않고 재배할 수 있으며, 가지치기나 다른 관리도 필요 없어 가장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수종 중 하나이다.

은행나무는 열매가 익으면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익었다는 증거이며 다른 동물들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익으면 일부러 따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진다. 나무 밑에 거적을 깔아 놓으면 잎과 함께 떨어지는데 모아서 풍구로 잎을 날려 보내고 은행 탈피기를 이용하여 껍질을 벗긴 후 씻고 선별기를 통해 등급별로 나누어 판매 또는 보관을 하면 된다.

은행은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데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하며 벌레 등도 전혀 생기지 않는다.

6-1-1. 수확시기

은행 수확시기는 은행이 자연 낙과되는 10월에서 11월이 보통이나 일본의 경우는 노동력과 시장상황을 고려하면서 8월 중순부터 은행을 수확하기 시작한다. 8월에 채취하는 은행을 물은행이라 하여 미숙과를 판매하기도 한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9~10월에 비싸고, 11~12월에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6-1-2. 수확방법

은행의 수확방법은 나무 위에 올라가 비틀어 떼거나, 장대에 낫을 달아 털어내는 방법 등이 일반적이다. 수고가 4m 이하이며 평탄지에 식재된 나무는 소형 엔진을 동력으로 진동에 의해 수확하는 방법도 있다.

6-1-3. 종피제거

은행을 수확하고 종피를 제거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냄새와 알레르기에 의한 피부병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다. 은행을 수확하여 한곳에 모아 놓고 비닐로 덮어 1주일 정도 지나 과육이 부패하여 진득진득해지면 망사 자루에 넣어 밟고 물에 담그면 종피가 쉽게 제거된다.

6-1-4. 저장방법

좋은 은행이란 외관이 희고, 잘 건조되어 있고, 안의 배유가 녹색을 띠는 것을 말한다. 적정 저장온도는 0.5℃, 습도는 90%로 보고되고 있으며, CA저장 (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대기가스(산소, 이산화탄소) 조성을 인공적으로 조절한 저장환경조건)을 하면 9개월까지도 저장이 가능하다.

6-2. 수확량

접목 1년생을 기준으로 한 나무에 1kg 정도를 수확하는 데 6~7년 정도 걸리며 수확량의 증가가 완만한 편이므로 1~2kg 정도 수확하면 소득이 되게끔 수량과 간격을 고려해야 한다. 한번 달린 곳은 매년 달릴 수 있도록 큰 나무를 만들어 늦게 수확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장을 한 후에 수확을 하면 좋다. 예를 들면 2~3kg 수확이 가능한 나무도 가지치기를 하여 1kg 정도만 수확하면 나무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좋다. 3m×1m의 간격으로 심은 경우 수확을 하다가 (최소한 10년은 기를 수 있음) 중간의 나무를 솎아 다른 곳에 옮겨주어(옮겨 심는 간격 5m) 애초 심은 곳은 3m×3m가 되도록 한다.

은행의 수확량은 절대적으로 나무의 크기에 관계되므로 큰 나무를 빠른 시간에 만들면 되는데 성장이 늦기 때문에 1그루에서 많은 수확을 올릴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큰 은행나무에서는 많게는 수백 kg까지 수확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가 식량으로 이용하는 작물 중에서는 단위면적당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작물일 것이다.

6-3. 전망

은행나무는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하게 자란 경우는 다른 어떤 작물에 비해 생산비가 적게 들며, 한 번 만들어진 나무는 매년 많은 노동력과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은행 수확을 목적으로 한 본격적인 재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근래에 들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빠른 시간에 경쟁의 우위에 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번 조성으로 후손 대대로 물려줄 유산으로 많이 심어 국토를 푸르게 함과 동시에 소득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